

10. 大統曆註, 12권 4책, 金嶺跋文
11. 宣德十年月五星凌犯, 1책 31장, 李純之, 金淡 受命校正
12. 七政算內篇, 3책 128장, 李純之, 金淡 受命編
13. 七政算內篇丁卯年交食假令, 2권 1책 30장
14. 七政算外篇, 5책 430장, 李純之, 金淡 受命編
15. 七政算外篇丁卯年交食假令, 2권 1책 62장
16. 諸家曆象集, 4권 4책, 李純之, 受命編
17. 天文類抄, 2권 1책, 李純之 編
18. 選擇要略, 3권 3책, 李純之 編
19. 交食推步法, 1책 105장, 李純之, 金石梯 受命編

II. 天文儀器의 製作

世宗은 主로 元의 郭守敬의 天文儀器를 따라서 鄭招, 李蕺, 金墩, 金嶺 및 蔣英實 等에 命하여 諸儀器의 製作을 擔當시켜서 世宗 14년부터 7年の 歲月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것들을 完成하여 使用하게 하였다.

1. 木簡儀 北極高度測定(白頭山, 摩尼山, 漢拏山)
2. 小簡儀 鄭招 小簡儀銘
3. 大簡儀 簡儀臺 高31尺, 長47尺, 廣32尺, 景福宮 簡儀銘
4. 正方案 儀南, 臺西
5. 銅表 5倍8尺之泉(尺=關尺 $\approx$ 20.66cm)
6. 圭(靑石) 長128尺, 廣4尺5寸, 厚1尺, 景符
7. 渾儀 元吳?書纂言所載에 依함. 渾儀渾象 共置小閣內
8. 渾象 丸圍 10尺8寸6分 激水機輪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음
9. 懸珠日晷
10. 天平日晷
11. 定南日晷
12. 仰釜日晷(仰儀) 郭守敬法에 依함, 金墩仰釜日晷銘
13. 日星定時儀 金墩日星定時儀銘
14. 自擊漏-報漏閣 金嶺報漏閣銘

15. 王漏=欽敬閣漏-欽敬閣 欽敬閣記

16. 石刻天文圖

*附 測雨器, 水表

이들 儀器는 王宮인 景福宮과 都城內北部 廣化坊 書雲觀에 設置하여 使用되었다. 이는 沈括이 夢溪筆談에 記錄한 禁中의 天文院과 宮밖의 司天監의 制度와 비슷하다.

III. 其 他

以上の 二代業績 밖에도 書雲觀의 行政의 擴張이 있으나 여기에는 世宗代에 書雲觀의 官員을 選拔했던 雜科 中の 陰陽科試의 試驗項目만을 紹介하기로 한다(世宗 12年 1430).

- (天文) 步天歌 宣明~步氣朔, 步交會, 授時~步氣朔, 交會, 太陽, 太陰, 金星, 木星, 水星, 火星, 土星, 四暗星, 步中星
- * (命課) 太一算, 星命卜課 周易占, 六壬占, 星命憲, 大定三天數, 範圍數, 紫微數, 星極數, 袁天綱, 五星精紀, 前定易數, 應天歌, 五摠龜, 三辰通載 欄江綱, 觀梅數, 海底眼, 碧玉經, 蘭臺妙選, 禽演新書, 三車一覽 天一經, 靈經
- * (地理) 地理大全, 地理全書

世宗의 天文學上的 業績은 以上과 같이 참으로 크다. 이는 모두 世宗自身の 天文學에 대한 敎養과 情熱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世宗의 第二王子로서 第7代王이었던 世祖는 曆法은 公家學이라고 한 것으로도 這般의 事情이 推測된다.

仰釜日晷

帝塚山學園 後藤晶男

나는 지금까지 해시계의 발상지의 탐구 및 그

전파의 역사를 연구하여 왔는데, 이번에는 모양이 특이한 한국의 양부일구에 초점을 두었다.

양부일구는 元의 郭守敬이 고안한 것인데¹⁾, Greek sundial, Roman sundial과 같은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꺾수경이 모두 독자적으로 고안한 것인지, Greek sundial의 힌트를 얻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朝鮮時代 세종대왕(A. D. 1418—1450) 때 독특한 발달을 했고, 현재 서울 부근에 많이 남아있다(사용된 것은 북위 35—37도 부근이 대부분이다). 시각 눈금은 적도 부근이 특히 자세하게 그려졌고, 바늘(gnomon) 모양도 독특하다. 이와는 반대로 Greek sundial은 시각 눈금이 굽고 단순한 막대 모양이다. 또 휴대용 양부일구는 일본에서 에도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휴대용과 매우 비슷하며, 또 扇垂라고 불리는 風水地官이 묘지의 위치를 정할 때 사용한 正午日時計는 같은 종류의 일본 것과 크기, 모양이 모두 같다. 이것으로 보아 휴대용 일본의 해시계는 일부를 제외하고, 직접 한국에서 전해져 왔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Greek sundial과 양부일구의 관계인데, 상당히 年代가 경과해 버렸기 때문에 확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두 같은 형태의 것이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²⁾ 등지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실크 로드를 통해서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最古의 형식으로 생각되어지는 페레기는형 해시계가 거의 같은 형태로 발상지 그리스, 동서문화교류의 접점인 中近東의 나라들, 게다가 중국, 한국, 일본에도 남아있다. 이를 두고 생각할 때 人類最古의 科學機器라고 불리는 해시계는 문명의 발상지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고안된 것으로도 생각되고, 서로의 교류 안에서 발달했다고 생각되기도 하며,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澁川春海에서 李圭景으로

외국어대 朴 星 來

日本天文曆學史에 그 이름을 뚜렷이 남기고 있는 澁川春海(安井算哲, 1639—1715)는 그의 글에서 자기 스승 岡野井玄貞이 “朝鮮の客螺山”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웠고, 그것을 자신이 이어 받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바로 이곳 京都 사람이었던 그의 스승이 이 1643년 朝鮮通信使의 일행이었던 螺山에게서 배운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 상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授時曆의 어떤 계산 방법 쯤이었을 것일 수가 있다. 이런 배움과 그 후의 끈질긴 노력으로 春海는 日本人이 만든 日本最初の曆法이라는 貞享曆을 완성하여 1684년 이것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京都의 曆算家에게 역법의 어느 부분인가를 설명해 준 것이 분명한 朝鮮의 손님 螺山은 누구였을까? 1643년 通信使行의 제4인자인 製述官으로 파견되었던 朴安期の 號가 바로 螺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천문학사에서 전혀 이름을 찾아 볼 수 없는 朴安期가 과연 당시 日本의 天文曆算家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내용을 지금 완전하게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17世紀 後半까지도 日本의 科學은 朝鮮으로부터 배워 갈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이를 경계로 급격히 달라져 버렸다. 예를 들면 1830년대 쯤 집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百科全書的인 李圭景(1788—1845?)의 大作「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雷法器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日本에서 수입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정전기 발생 장치이다.

1)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高麗書林, 1978).

2) Heinz, KLAUTKE Istanbul'daki Güneş Saatleri Aydın Akbiyik Sandoz (Urünleri LTD, Stü, 1985).